

FIP-2009-0008 (통권 제132호, 2009. 5. 19)

원가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주요 제품의 가격변화 분석

ISSUE
PAPER

Contents

1. 분석 배경	3
2. 주요 업종별 분석결과	4
1) 정유(휘발유)	4
2) 철강	9
3. 결론 및 시사점	10

-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·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.
- 이 자료는 본회 경제정책팀 이재수 선임조사역이 작성한 것입니다.
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TEL : 3771-0495 FAX : 6234-5302 E-mail : ljs@fki.or.kr

1. 분석 배경

-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생산비 변동을 제품가격에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기업과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의심
 -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, 판매하는 기업들은 원부자재 국제가격, 환율변화 등에 따른 생산비 변동을 제품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음
 - 일부 소비자나 시민단체는 기업이 생산비 상승폭 보다 제품가격을 더 올리거나, 생산비 하락폭보다 제품가격을 덜 내려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

최근 유가관련 보도

- 두바이유 60% 폭락해도 국내 휘발유 값 18.7%밖에 안 내렸다.(조선일보, 4.13)
- 정유업계는 국제 휘발유 가격만 낮아지면서 가격인하에 소극적(SBS, 4.13)
- 정유사 기름값, 투명 공개 노력해야(서울신문, 3.25)

※ 주유소와 석유정제업자, 석유수출입업자는 사업자별 평균 판매가격을 수시,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'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'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통과(시행일 : '09.5.1)

- 제품가격 결정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각의 주장과 잘못된 보도로 해당 기업 및 제품의 이미지가 실추되고, 매출에도 부정적 영향
-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일부 제품에 대해 실제 원부자재 가격과 환율변동이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,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
 - 휘발유, 열연강판은 원료를 100%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료의 국제가격과 제품가격 간 분석을 통해 일부 소비자들 인식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이 용이
- ※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원부자재 국제가격, 환율 이외에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치나 객관적으로 측정이 곤란한 요인들(예 : 생산성, 기술 등)은 일정하다고 가정

2. 주요 업종별 분석결과

1) 정유(휘발유)

□ 유가 상승기, 정유사 판매가격* 상승폭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크게 하회

* 세전 판매가격을 의미함. 통상 정유사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(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), 국내공급 시 발생하는 비용(관세, 수입부과금, 국내유통비)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 책정

○ 국제유가 상승기('07.6월~'08.6월)에 정유사는 판매가격을 국제 휘발유가격 상승기 누계의 85%, 원유가격 상승 누계의 66% 수준에서 책정

* 정유사 실판매가격 공개('07.6) 이후 국제 휘발유가격 최고시점은 '08.6월(배럴당 138.82불)

○ 상승폭을 단순 비교할 경우, 세전 정유사가격 상승폭은 국제 휘발유가격 상승폭의 92%, 원유가격 상승폭의 85% 수준임

○ 정유사는 국제유가 상승기에 수요 감소, 정부의 가격안정 정책, 소비자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판매가격을 환율이 반영된 국제유가 상승폭보다 적게 올림

< 유가 상승기 ; 국제 휘발유, 원유가격 대비 정유사 판매가격 >

구 분 (단위 : 원/ℓ)	세전 정유사 가격 ①	국제 휘발유 가격 ②	원유(Dubai) 가격 ③	변동률(%)	
				①/②	①/③
'07. 6 (A)	564	494	389		
'08. 6 (B)	944	909	838		
단순비교 (B-A)	380	415	449	92	85
상승기 누계* ('07.6~'08.6)	1,320	1,562	1,987	85	66

* 국제유가 등락에 의해 조정된 가격의 변동 폭을 누계한 결과

** 해당 월 평균환율 기준으로 원/ℓ 환산, 이하 동일

□ 유가 하락기, 정유사 판매가격 하락폭은 국제유가 하락폭과 일치

○ 국제유가 하락기('08.6월~12월)에 정유사는 판매가격을 국제 휘발유가격 하락기 누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

○ 하락폭을 단순 비교할 경우, 세전 정유사가격 하락폭은 국제 휘발유가격 하락폭의 93%, 원유가격 하락폭의 110% 수준임

< 유가 하락기 ; 국제 휘발유, 원유가격 대비 정유사 판매가격 >

구 분 (단위 : 원/l)	세전 정유사 가격 ①	국제 휘발유 가격 ②	원유(Dubai)가격 ③	변동률(%)	
				①/②	①/③
'08. 6 (A)	944	909	838		
'08. 12 (B)	413	339	353		
단순비교 (B-A)	△531	△570	△484	93	110
하락기 누계 ('08.6~'08.12)	832	835	1,333	100	62

* 최고시점('08.6) 이후 국제 휘발유가격의 최저시점은 '08.12월(배럴당 38.93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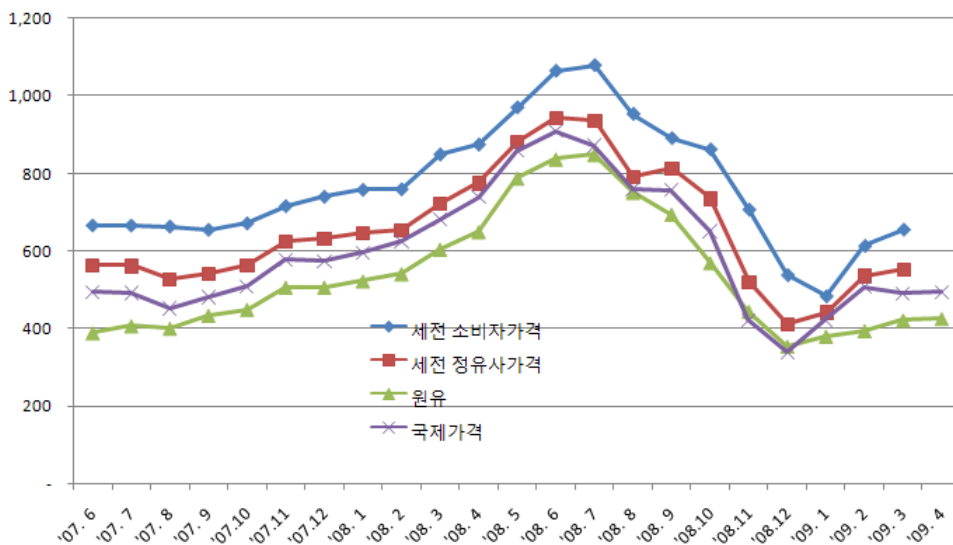
□ 종합적으로 보면, 정유사 판매가격의 등락폭 누계는 국제 휘발유 가격 및 원유 가격의 변동 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

- 정유사 실판매가격 공개('07.6월) 이후의 정유사 판매가격의 변동 폭과 국제유가 등락에 의해 조정된 국제석유가격 변동 폭을 누계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자는 국제 휘발유가격의 **90%**, 원유가격의 **65%** 수준

< 국제 휘발유, 원유가격 대비 정유사 판매가격 변동 폭 누계 >

구 분 (단위 : 원/l)	세전 정유사 가격 ①	국제 휘발유 가격 ②	원유(Dubai)가격 ③	변동률(%)	
				①/②	①/③
상승기('07.6~'08.6)	1,320	1,562	1,987	85	66
하락기('08.6~'08.12)	832	835	1,333	100	62
종합 누계('07.6~'08.12)	2,152	2,396	3,320	90	65

< 휘발유 세전가격 및 국제가격 추이 (단위 : 원/리터) >



[참고]

소비자가격 기준 휘발유가격 변동 폭 분석

□ 국내 석유제품 가격결정 방식

- 국내 석유제품 공장도가격(세전 정유사가격)은 원유가격이 아닌,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, 환율,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각 정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
- 소비자가격은 정유사가 결정한 공장도가격에 각종 세금(휘발유가격의 약 60%) 및 주유소·대리점의 유통마진을 더해 결정

< 기간별 휘발유 세금구조 >

구 분 (단위 : 원/l)	적용기간			
	'08.3.9	'08.3.10~10.6	'08.10.7~12末	'09.1.1~
교통환경에너지세	505	472	462	514
교육세	75.8	70.8	69.3	77.1
지방주행세	164.1	127.4	138.6	154.2
세금계(부가세 제외)	744.9	670.2	669.9	745.3

* 올해 들어 유류세 10% 인하조치가 종료되면서 휘발유 세금 인상

□ 국제유가 고점('08.7)대비 최근('09.3) 소비자가격 변동 폭 분석

- '08.7월 고점 대비 '09.3월 환율을 감안한 국제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381원 하락하였으나, 정유사 공급가격은 389원 인하
- 주유소 소비자가격에는 약 60%에 달하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가격 인하율이 국내가격에 유사한 비율로 반영되기는 어려움
 -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관세 인상도 국내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

* 수입관세 변동추이 : 1%('09.1) → 2%(2) → 3%(3)

- '09.3월을 기준으로 할 때, 휘발유 소비자가가격의 58%가 세금이며, 세전 정유사 가격(제반비용 포함)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국제휘발유가격 보다 4%p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, 주유소 마진(제반비용 포함)은 소비자 가격의 6% 수준

< 국제유가 고점 대비 최근 소비자가격 변동 폭 >

구분	두바이 유 (\$/B)	국제휘발유 (\$/B)	국제 휘발유 (원/l)	세전 정유사 가격① (원/l)	세금 ② (원/l)	③ (①+②) (원/l)	주유소 마진 (제반비용 포함) ④(⑤-③)(원/l)	소비자 가격⑤ (원/l)
'08.7	131.3	134.7	871.8(45%)	937.5(49%)	845.1(44%)	1,782.6	140(7%)	1,922.6
'09.3	45.6	53.2	490.8(32%)	548.8(36%)	885.7(58%)	1,434.5	96(6%)	1,530.5
증감폭	△85.7	△81.5	△381	△388.7	40.6	△348.1	△44	△392.1

* ()는 소비자가격 대비 비율

* 자료 : 한국석유공사, 석유협회

□ 국제유가 저점('08.12) 대비 최근('09.3) 소비자가격 변동 폭 분석

- 금년 들어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, 환율도 상승하여 세전 정유사 공급가격도 크게 상승
 - 지난 연말대비 국제 휘발유가격 상승폭은 두바이유 가격 상승폭의 3배에 달하며, 환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내 공급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
- '08.12월 저점 대비 '09.3월 환율을 감안한 국제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151.4원 상승하였으나, 정유사 공급가격은 136.2원 상승

< 국제유가 저점 대비 최근 소비자가격 변동 폭 >

구분	두바이 유 (\$/B)	국제휘발유 (\$/B)	국제 휘발유 (원/l)	세전 정유사 가격① (원/l)	세금 ② (원/l)	③ (①+②) (원/l)	주유소 마진 (제반비용 포함) ④(⑤-③)(원/l)	소비자 가격⑤ (원/l)
'08.12	40.5	38.9	339.4(26%)	412.6(31%)	790.7(60%)	1,203.3	125.2(9%)	1,328.5
'09.3	45.6	53.2	490.8(32%)	548.8(36%)	885.7(58%)	1,434.5	96(6%)	1,530.5
증감폭	5.1	14.3	151.4	136.2	95	231.2	△29.2	202

* ()는 소비자가격 대비 비율

* 자료 : 한국석유공사, 석유협회

□ 결론

- 최근 일부 소비자 및 언론의 국내 석유소비자가격에 대한 불만은 국내유가 결정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임
 - 국내 석유(휘발유) 공장도가격은 원유가격이 아닌 국제 석유(휘발유) 가격에 의해 결정되므로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제 휘발유가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
 - '09.3월 기준,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(58%)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이며, 실제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(제반비용 포함)은 국제휘발유가격보다 소폭(4%p) 높은 수준에서 결정
 - 주유소 마진(제반비용 포함) 또한 최종 소비자가격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함(6%)
- 국내유가 결정구조와 함께 이상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, 석유의 국내소비자가격 수준은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

2) 철강

- 원재료가격 상승기, 열연강판의 가격 상승폭은 원재료비 상승폭을 크게 하회
 - 원재료가격 상승기에 철강 주력제품인 열연강판*의 가격 변동폭과 원재료가격 변동 폭을 비교하면, 전자는 후자의 56% 수준
 - * 철강 반(半)제품인 슬래브를 고온으로 가열한 뒤 누르고 늘여서 두께를 얇게 만든 강판

< 원재료가격 상승기, 원재료가격 대비 열연강판 가격 변동 >

구분 (단위 : 천원/톤)	철광석 (분광) 가격	원료탄 (강점탄) 가격	원재료비* ①	열연강판 공장도가격 ②	변동률(% ②/①)
'08. 1(A)	48.5	92.3	150	640	
'09. 2(B)	112.0	430.5	523	850	
B-A	63.5	338.2	373	210	56

* [철광석 도입가격(\$/톤)×환율×1.6 + 원료탄 도입가격(\$/톤)×환율×0.7]÷0.95
(철광석 1.6톤 + 원료탄 0.7톤) → 쇳물 1톤 → 열연강판 0.95톤 생산

* 철광석, 원료탄은 연간계약 가격 기준

※ 철광석, 원료탄은 연간단위로 계약하므로 정유분석 시와 같이 누적분 비교가 불필요

- 과거 10년 동안 철강 원재료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으므로 원재료가격 하락기 분석은 생략

3. 결론 및 시사점

- 원재료가격 및 환율 변동 폭과 가격 변동 폭에 관한 일부 소비자 및 시민 단체의 주장은 부적절
 - 휘발유가격의 경우, 유가 상승기의 정유사 판매가격은 환율을 감안한 국제 휘발유가격 상승폭만큼 인상되지 않았으며, 하락기 정유사 판매가격은 환율을 감안한 국제 휘발유가격 하락 누적분을 100% 반영
 - 철강의 경우도, 철광석·원료탄 등 원재료가 상승기에는 상승폭만큼 제품 공장도가격을 올리지 못함
 - 따라서, 해당 제품에 대하여 기업이 생산비 상승폭보다 판매가격을 더 높게 올리거나, 생산비 하락폭보다 판매가격을 덜 내려서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부당
- 일부제품의 소비자가격이 원료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 폭보다 적게 인하되는 것은 높은 세금비중 등 소비자가격을 구성하는 다른 요인에 기인
 - 휘발유의 경우, 부과되는 세금(894원/리터, '09.2월 기준 주유소가격의 약 60%)은 국제유가 하락 비율만큼 주유소 판매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
- 제품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제품가격 책정과 관련한 기업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
 - 제품가격은 원재료가격, 환율 등 객관적 요인뿐만 아니라 생산비 절감노력, 기술개발 수준,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하우 등 개별기업 고유의 요인에도 영향을 받아 결정됨
 - 아울러 세금, 정부정책 등 생산과정과 무관한 요인도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의 가격결정과 이에 대한 소비자 선택은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